



개편된 지역성평등지수, 대전 상위권

그러나 의사결정·돌봄에서 성별 격차 여전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지수 산출을 위한 지역성평등지표는『양성평등기본법』제19조 3에 따라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편된 지표에 대한 2022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시범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그간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를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는 재구성됐다.

개편된 지역성평등지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준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

영역	분야	지표
사회참여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small>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위원회 비율</small>
	경제활동	※ <small>경제활동참가율</small>
		임금격차
인권·복지	교육·직업훈련	상용근로자 비율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small>공적연금 가입자 비율</small>
	보건	※ <small>건강관련 삶의 질(EQ-5D)</small>
		건강검진 수검률
의식·문화	안전	스트레스 인지를
		※ <small>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small>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	가사노동 시간
		※ <small>가족관계 만족도</small>
	문화·정보	※ <small>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small>
		육아휴직자 비율
		※ <small>여가 시간</small>

측정 기준 | 기준 연도 통계 부재시 과거 통계 활용하여 추세치 산정·적용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점'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개편 3대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

목표	영역	지표
자원의 동등한 접근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small>초중고 교장·교감 비율</small>
	고용	※ <small>고용률</small>
		상용근로자 비율
평등한 관계	소득	※ <small>경력단절여성 비율</small>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교육	※ <small>국민연금 수급률</small>
		평균 교육연수
	건강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small>주관적 건강상태</small>
		※ <small>기대수명</small>
돌봄	돌봄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
	양성평등의식	※ <small>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small>
		※ <small>성차별 경험률</small>
		※ <small>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small>
가정	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측정 기준 | 기준 연도 통계 부재시 최신 확정된 통계를 동일하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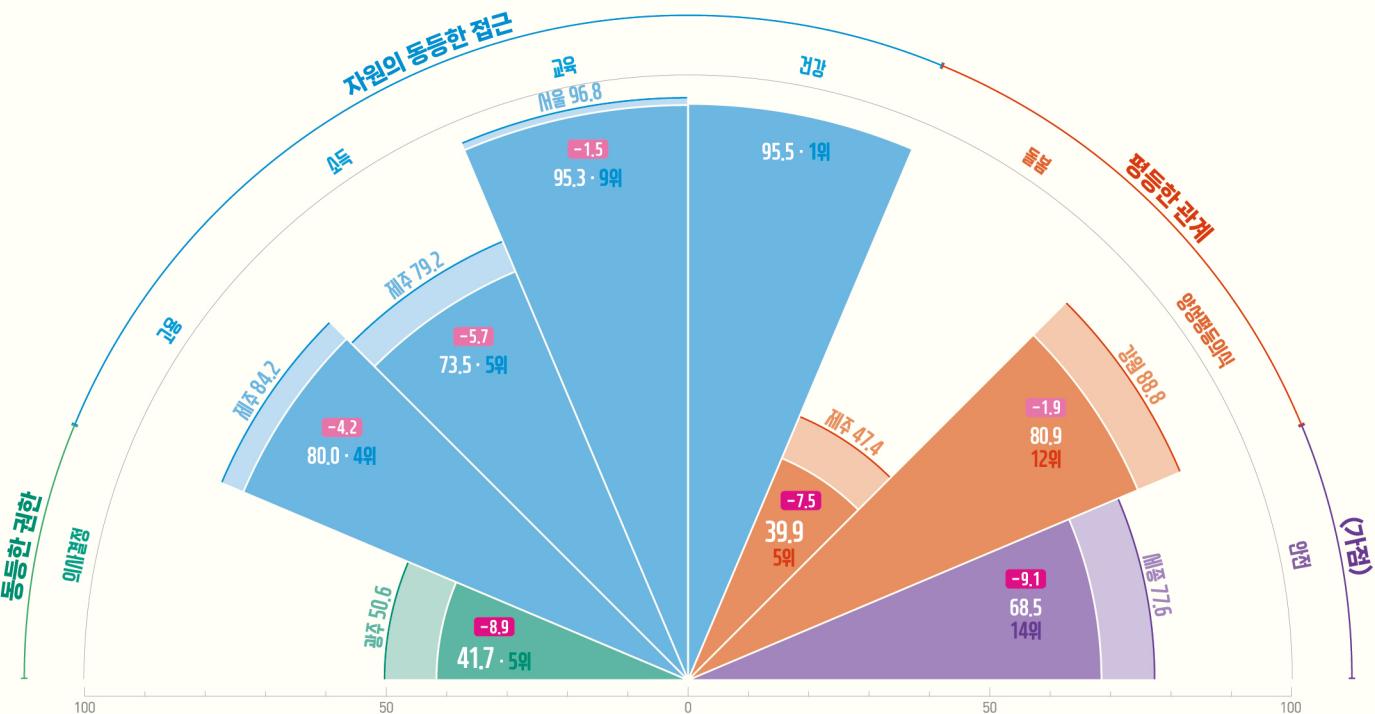
1위와의 격차가

**가장 큰 '의사결정'과
'돌봄', 각각 41.7점,
39.9점에 머물러**

지역성평등지수를 토대로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¹⁾으로 구분한다. 대전은 2022년 기준 '상위 지역'에 해당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7개 영역 중 '건강'(95.5점)은 가장 높은 점수로 1위에 올랐다. 반면 '돌봄'은 39.9점(5위, 1위보다 -7.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의사결정이 41.7점(5위, 1위보다 -8.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점 영역인 '안전'의 경우 68.5점(14위)으로 순위가 가장 낮으며, 1위인 세종(77.6점)과의 격차(1위보다 -9.1점)가 가장 크다.

개편 대전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현황(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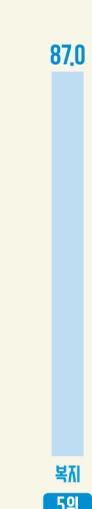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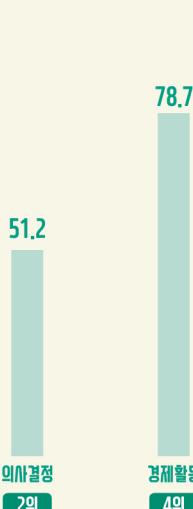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기준 대전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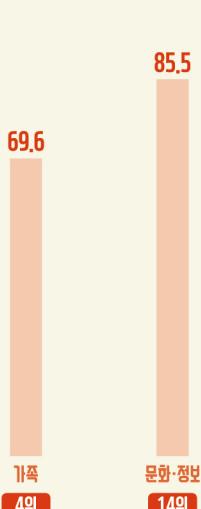
성평등 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1) 각 등급 내 시도 순서는 행정구역 순서임(2022년 기준 상위 지역 :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 중상위 지역 : 부산, 대구, 경기, 충남 / 중하위 지역 : 인천, 울산, 강원, 전북 / 하위 지역 :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출처: 여성가족부,『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성인지정책 포럼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 친밀한 관계 범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024년 제1회 성인지정책 포럼**데이트 폭력 & 스토킹****사랑이라는 착각,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후 2시

장소 | 커먼즈필드 대전, '모두모임방 2'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보다 더 큰 피해를 주면서도
가해자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식하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발표**교재폭력의 특성 분석과 대응방안**

- 조민상 |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좌장

- 황경란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지정토론(기나다순)

- 신우리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 조 성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접수기간 | 7월 19일(금)까지

접수방법 | QR코드 스캔 또는 E-mail 신청

문의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E-mail. sgnow@dsi.re.kr TEL.042)530-3548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